

<연구자 권리 증진과 차별 철폐를 위한 공동 토론회> 정례화 제안

제안 주체: (사)지식공유 연구자의집

제안일: 2021년 8월 13일

1. 배경과 문제의식

- 기성 학문권력의 무능과 부패, 신자유주의화의 광풍 속에 대학과 학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수 많은 연구자들은 양극화된 노동시장, 신분제적 위계 구조 속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저희 ‘(사)지식공유 연구자의 집’은 올 초부터 학술적 연구의 정당한 가치와 연구자들의 권리를 천명하고, 대학과 학계 내부의 차별 철폐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연구자 권리 선언’을 준비해 왔습니다.
- 지난 6월 4일에는 ‘(사)지식공유 연구자의집’, ‘지식공유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민주평등사회를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가 공동 주최하여 “학술 운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방과 비제도권의 목소리”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국 학술운동의 변천과 전망에 대해 토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학술운동과 연구자 권리에 관한 토론회를 여러 학술/연구자 조직들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를 정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사)지식공유 연구자의집’은 ‘연구자 권리 선언’ 문안이 거의 완성됨에 따라, 권리 선언의 사회적 확산 방안과 연구자 권리 증진과 차별 철폐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일련의 공동 토론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2. 토론회 계획 및 일시

1) 1차: “학술 운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방과 비제도권의 목소리”

- 일시: 2021년 6월 4일(금) 오후 3시
- 개최 완료

2) 2차: ‘연구자 권리 선언’ 문안 확정 및 공감대 확산 방안

- 일시: 2021년 9월 3일(금) 오후 3시

3) 3차: 연구자 차별 철폐 운동의 전략(가안)

- 일시: 2021년 10월 8일(금) 오후 3시

4) 4차: 학술생태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식공유운동의 방향성(가안)

- 일시: 2021년 11월 5일(금) 오후 3시

2차 토론회 이후에 열릴 토론회의 주제, 일시, 횟수는 가안으로, 공동 주체 단위와의 향후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3. 공동 주최 제안 단체

-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 비정규교수노조
- 교수노조
- 대학원생노조
- 학술단체협의회
- 지식공유연대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인문학협동조합
- 만인만색 등